

맑은 물을 위해 힘을 하나로

충주시 수자원본부

충주시를 상징하는 꽃은 국화다.
국화는 여러 개의 꽃잎이 모여서 하나의 큰 꽃잎을 이루는 대표적인 두상화(頭狀花)다.
수많은 꽃잎이 한 송이 꽃을 이루는 묘미, 그것이 바로 충주시 수자원본부라고 할 수 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곳, 충주시 수자원본부를 찾아가 보았다.



전국 최고의 물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충주(忠州)는 중심(中心)을 뜻하는 ‘충(忠) 자와 고을 ‘주(州) 자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예로부터 행정·군사·교통의 중심지로 찬란한 중원문화를 꽃피워온 고장이다. 또한 남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 충주호를 비롯한 탄금호, 남한강, 달천강 등 주변이 호수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용수 공급도 풍부하다.

천혜의 자연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충주시 수자원본부의 노력 또한 으뜸이다. 충주시 수자원본부는 4개과(상수도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수자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자원본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 공급, 지하수관리,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이다.

충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읍·면이 드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 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광활한 약 984km²의 토지 면적에 25개의 읍·면·동(1읍·12면·12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6만 8천 여 톤이며 급수 보급률은 현재 81.3% 정도이다. 충주시는 관내 지역을 넘어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면 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 2012년까지 125억 원을 들여 61km의 광역 상수도 업징 수수시설과 노은면 및 가금면의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여 급수 보급률을 상승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충주시 수자원본부
원정희 본부장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로

“상수도과의 가장 중점 사업은 급·배수관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만 충주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도물 공급 지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광역상수도 시설 공급,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급·배수관 시설 확충 및 교체,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수도물 수질검사, 정수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안봉수 상수도과장은 지난해 양성면 당평마을 등 32개소에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수량 부족과 수질오염 등으로 급수가 부적합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벌동 남벌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관정개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하수도와 관련된 생활 민원 처리 등 하수도 관련 업무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및 마을 하

“공무원의 본분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마시는 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항상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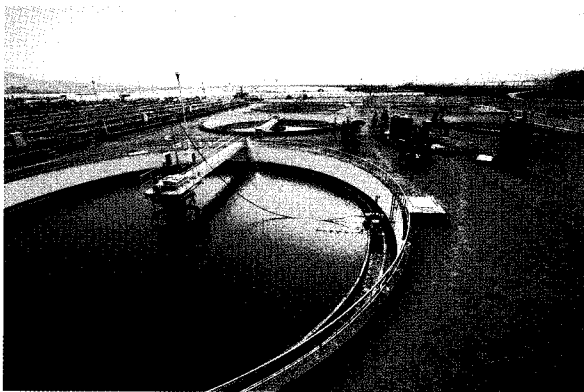
수도 설치 사업 등은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설치와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 향상을 돕고, 수생태계 보전에 나서는 것이 바로 하수시설과의 몫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채혈병 하수시설과장은 2004년부터 ‘하수도 위험시설물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 및 덮개 파손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하수도 누수 및 역류로 침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6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효율이 향상되어 수질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경중이 없겠지만 물을 관리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책임감이 필요하다. 충주시 수자원본부 하수처리과의 책임감은 조직 운영에서부터 나타난다. “하수처리과는 4개의 대형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35개소,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 관리와 유입수 및 방류수 관리 및 검사, 환경기초시설 개방 및 환경 학습교육장 운영 등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한기 하수처리과장은 충주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없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아직까지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한다.



청정 충주 구현에 한마음으로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충주시 수자원본부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은 그동안 일궈낸 혁혁한 성과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수자원본부의 운영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27년 된 노후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2006년 2월 총 사업비 101억1,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200㎥ 분뇨처리 규모의 사업에 착공함으로써 2008년 12월에 준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혐오시설로 여겨오던 곳이 친환경 기초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수질 향상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정희 수자원본부장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충주시 수자원본부의 기본 정신임을 강조한다. 물론 그러한 힘은 여러 혁신활동을 통해 비용절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충주시의 노력은 ‘주부검침원 위탁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2월부터 실시한 주부검침원 위탁제도는 충





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수도 민원을 최소화하며 인력 부족 및 업무 공백을 현격히 줄여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일조하였다.

“늘 역지사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공무원의 본분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맡은 업무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관련된 일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원정희 본부장은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자원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국 최고의 물 관리’를 통한 ‘청정 충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더욱 경주할 것을 강조한다.

“청정 충주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남한강 상류의 수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BTL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인력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2009년에도 충주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이 국부가 되는 블루골드 시대, 물과 관련된 상하수도 행정이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원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145명의 직원은 이를 직시하고 전국 최고의 맑은 물 관리를 통한 ‘Good Chung-ju 건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